

그리스도인의 여정, 참복음에서 성령의 열매까지 -복음으로 여는 갈라디아서- 사무엘상 18:7-9, 갈라디아서 5:22-23

정운돈 목사님

* **삼상18:7-9**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나 하고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 **갈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준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나와 교회와 현장과 나라와 민족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학자들은 사단이 타락한 이유로 몇 가지를 말한다. 그중에서 어거스틴은 사단이 찬양하는 천사였으나 ‘교만’ 때문에 타락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타락한 또 다른 근본 원인이 인간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고 했다. 사단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닮게 지으시고, 천사를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 심부름하는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시기, 질투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렇게 끌어내려야 혈액순환이 되는 사람들은 마귀와 가깝다.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가 미래에 받을 많은 축복을 빼앗아가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은 주변에 잘 되는 사람들을 축복해라. 그 사람들은 그만큼 보이지 않게 지혜 있고 능력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면 그 이하의 신앙생활밖에 할 수 없다. 사단의 짓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기준, 수준, 표준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행복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과 맞지 않게 살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발버둥 치다가 세계복음화를 전혀 하지 않고 죽는 삶은 의미가 없다.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다. 먹는 것 밝히지 마라. 그런 것 밝히지 말고 내게 주시는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따라가라.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안 따라오더라도 상관없다. 거기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다. 아파 237나라 전혀 못 갔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꼭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대로 되어야 응답이 아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문 여시면 가는 것이다. 그러나 갈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다. 안 되더라도 그림은 계속 그려야 한다. 저는 일본 300지교회 그림을 그린다. 여행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 해도 후쿠오카에서 동경까지 퀵 보드를 타고 일주하더라. 취미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는다. 저는 70년대와 70년대를 두고 기도했다가 스리랑카 문이 열렸다.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사울 왕은 자신에게 천천, 다윗에게 만만이라 하는 걸 보고 시기, 질투했다. 그리고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우리도 자칫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게 다 사단의 통로다. 만약 사울 왕이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을 인정해주었다면 더 강성해졌을텐데 죽이려하다가 왕권도 빼앗고 전쟁에서 졌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시기, 질투하고 염려, 걱정하면 그걸로 여러분 인생 끝난다. 다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맞지 않다. 우리 목적이 어디 있어야 할까. 지금도 사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인간을 넘어뜨리고 있다. 사단은 인간을 좌절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죽이고 불평하게 하고 선악과 따먹어서 남의 죄 보는 눈이 밝아지게 했다. 하나님은 생명

나무를 주시며 자신과 남들도 살리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선악과 먹으며 죽이는 인간이 되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완전, 충분,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사울 왕처럼 다윗을 시기하는 시기심으로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갖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고 적게 가진 사람은 무능해서 망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에 절대대대를 세우겠다는 가치 있고 복음적인 절대목표가 있어야 한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기도도 안 하는 건 우리 책임이다. 기도하고 도전하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때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행복한 인약의 여정을 걸어가갈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전도도 잘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에 헌금도 잘하는데 인간관계가 안 되고 문제 앞에서 불신앙하고 이익과 자리 앞에서 동기를 부리고 결국 성령의 열매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자칫 잘못하면 복음, 신앙, 하나님을 오택하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 속 주인으로 삼았다면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참복음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다. 십자가에는 자존심이 없다. 인내와 용서와 사랑이다. 희생과 오래 참음, 겸손이 거기 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되어야 한다. 우리는 용서받았으면서 우리가 남을 평가하고 정죄할 수 없다. 자존심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자존심 세우고 있으면 사탄의 통로가 된다. 완전복음, 오직복음 되어야 한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지 못하면 세상이 지옥이다. 여러분의 절대목표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되시기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교회를 주셨다. 단, 나를 버리고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내가 죽고 다 살리는 그리스도의 방법이어야 한다. 내 주장, 내 이익, 내 자리로는 윈리스 할 수 없다. 결국 갈라디아교회를 향해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갈라디아 지방은 사도 바울이 가장 초창기에 전도했던 지역이었다. 회당에서 전도했기 때문에 갈라디아교회의 주 구성원은 유대교 출신들이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참복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즉, 할례와 모세의 율법 실천을 구원의 조건으로 강요하는 유대인들이 갈라디아교회 안에 들어와 잘못된 다른 복음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참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율법 정도가 아니라 율법 이상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까지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걸 넘어서 원수가 주리거든 먹게 하고 마시게 하라는 게 복음이다. 이 성령의 열매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 영적으로 성장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겠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전도운동을 할 수 없다. 교회나 지교회, 제자 사역은 지속해야 한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속적인 지교회, 전문교회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그래야 세계복음화된다.

1. 갈라디아교회에 침투한 다른 복음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유대인들은 오래 전부터 할례를 했는데, 이걸 피인약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식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할례가 완성되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한다고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날마다 부활절, 날마다 안식일이 된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림자인 구약에 잡혀 구원을 위해 할례와 안식일과 율법을 지켜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의인은 없다. 모든 이단들은 뭔가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만약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몇 번 빠지는 것까지 구원받을까? 본인들도 모른다.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 조직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율법을 활용한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고 종 삼으려 하는 무리라고 말하고 있다.

(2) 또 성도들을 피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돈거래 하지 마라.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탄이 언제 역사할지 모른다. 피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다. 그리고 그러한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성도들도 있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씀하고 있다. 목사님의 지나가는 말이라도 내게 주신 레마로 붙잡고 응답받아야 한다. 그러면 모든 메시지가 내게 축복이 된다. 메시지에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공부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공부하는 법이 상관없듯이 전도와 선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메시지가 상관 없다. 죽어있는 말씀이 된다. 여러분은 메시지를 받고 무엇을 실천하나. 그게 나의 현장이다. Heavenly Talent다.

(3) 그들은 율법은 행하지 않고, 할례받은 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려는 율법 주의자였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겠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는 “할례를 받은 그들이

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자기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 선민임을 자랑한 것이다. 하나님은 세계선교 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자랑하기만 했다.

(4) 그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목회자를 비난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 12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당시 교회에서 자기 목적 달성과 이익을 위해서 바울을 말도 잘 못하고 기도 작고 못생기고 병도 있었다며 비난했다. 바울은 자신이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세웠다고 변호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다며 목사님께 불순중한다. 진도를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면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겸손한 태도와 자세를 원하신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선생님이 다 성공하신 건 아니지만 잘 배우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선생님을 비난하거나 대드는 태도로는 안 된다.

(5) 또한 그들은 성도들을 이간시켰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증인도 그렇고 이단과 신진지도 처음 오면 엄청 잘해준다. 끌어들이어서 조직을 크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갈라디아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핵심은 율법주의였다.

(6) 모두 율법을 지키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① 바울은 율법을 따르는 것이 천박한 초등학교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닌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교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왕, 제사장, 선지자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 ②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③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심지어 죄인을 심히 죄인되도록 하는 것이라 했다. 나는 어차피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율법주의자는 율법으로 남을 지적하고 자신에게 겸손하지 않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이다. 지금도 모든 이단과 모든 종교들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뱀을 지키고 몸을 정하게 하고 어느 날을 피하고 방향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사탄과 재앙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복음에도 그냥 복음과 오직복음과 완전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있다. 그냥 복음을 받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직이 되어야 전도를 할 수 있다. 오직으로 결론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영접하게 하거나 전도할 수 없다. 완전복음이 되어야 지속할 수 있다. 영원한 복음은 선교다.

(1) 첫째로,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한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복음이 뭇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2)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3)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함께 읽겠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 이 말씀도 꼭 외워야 할 핵심 복음요절이다.

(4) 그 복음의 법적인 원리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다. 세상 법도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사건이 종결된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

랑하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팽창히 오해한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이 나를 부인하고 양보하고 비우는 거라고 오해한다. 그게 아니다. 이미 십자가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어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말이다. 왕 중의 왕 그리스도의 권한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가를 치루셨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양자역학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기도하는 게 현장에 그대로 응답된다. 불안해하고 걱정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전 세계로 영향을 준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땅에서 흑암이 꺾인다.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고 반드시 응답으로 온다. 완전복음이 되시기를 바란다.

(5)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율법주의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사도 바울을 말한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종의 후손이 아닌 이삭처럼 약속의 자손이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복음의 내용이다.

(6)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예수를 영접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는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با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300영접 도전하셔야 한다. 영접에 달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내용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도 자세히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할례와 날과 절기를 강조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를 맺어가는 삶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함께 읽겠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을 열매를 더욱 맺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다. 성령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①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다. ② 화평은 '카타', Joy, 기쁨이다.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③ 화평은 Peace, 살롬, 평화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참된 평화다. ④ 인내는 잘 견디고 참는 것이다. ⑤ 자비는 친절이다. Kindness.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해야 한다. ⑥ 양선은 Goodness, 착한 것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면서 선하시고 착하시다. 하나님이 착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혜롭고 착해야 한다. 착한 건 어리석은 것과 다르다. ⑦ 충성은 Faithfulness, 신실함이다.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부족해도 어디를 가든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⑧ 온유는 Gentleness다. 어디를 가든 멋있어 보여야한다. ⑨ 절제는 Self-control이다. 이게 되어야 서밋이 될 수 있다. 성령충만을 누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령충만을 받는 방법이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다. 이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나의 것이 되고 멍끝까지 중언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은 7.7.7기도 즉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문 중에서 7망대 기도를 하겠다. 7망대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오력, 공중권세 결박, CVDIP, 세 가지 뜯이다.

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②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초월과 237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과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 무후무한 답을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옵소서. ③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④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⑤ 나에게 시공간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⑥ 나에게 미리 보는 CVDIP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⑦ 세 가지 뜯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처럼 먼저 참복음을 이해하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 감으로서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고 지옥갈 수밖에 없고 멸망 받을 우리를 영세 전에 선택하셔서 참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까지 맺어 세계를 살릴 비전까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응답과 축복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 우리 교회와 교단과 한국 교회가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